

4년째 매년 1억 원... '위국헌신 전우사랑 기금' 쾌척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주관 기증식
 '더존 ICT그룹' 5년간 약속... 네번째
 "국가에 희생·헌신한 장병 위해 사용"

국가를 위해 헌신·희생한 장병들을 예우하고 그 명예를 높이기 위해 육군이 조성한 '위국헌신 전우사랑 기금'에 매년 거금을 쾌척해온 기업이 화제가 되고 있다.

더존 ICT그룹은 24일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서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열린 위국헌신 전우사랑 기금 기증식에서 1억 원을 전달했다.

위국헌신 전우사랑 기금에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각계각층의 자발적인 참여로 32억6700여만 원이 모였다. 더존 ICT그룹은 기금 모금 시작부터 5년간 매년 1억 원씩 기부할 것을 약속했으며 올해로 4년째 약속을 지켜오고 있다.

더존 ICT그룹 김용우 회장은 "위국헌신을 실천한 장병과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육군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남영신(오른쪽 셋째) 육군참모총장이 24일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서 열린 육군 위국헌신 전우사랑 기금 기부금 전달식에서 더존 ICT그룹 김용우(왼쪽 셋째) 회장으로부터 기부금을 전달받은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육군 제공

남 총장은 "디지털 뉴딜 대표기업인 더존 ICT그룹이 육군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4년째 기부를 이어온 것에 감사한다"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장병들을 위해

뜻깊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육군은 모은 기금을 토대로 지난 2019년 7월 고공강하 훈련 중 사고로 순직한 고(故) 전영준 원사 유족에게 첫 위로금을 전

달했다. 이밖에 각종 훈련·작전 중 순직한 장병 유가족 8명과 부상 장병 1명에게 기금을 전달하며 국가에 헌신한 장병을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한영 기자

예비 전력 미래 혁신 정립 '내일이 더 강한 육군 건설' 박차

육군, 예비 전력 정예화 대토론회
 과학화 훈련 등 심도깊은 의견 교환

육군이 '내일이 더 강한 육군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육군은 25일 이 같은 계획의 하나로 상비 전력 수준의 예비 전력 정예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대웅(소장) 육군참모차장 대리 주관으로 계룡대 대회의실에서 열린 회의는 예비 전력의 미래 혁신과 제2의 도약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회의에는 육군 동원관계관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우·문·예·답(우리의 문제는 예비전력에 답이 있다)'을 주제로 진행됐다.

회의 참석자들은 미래 예비 전력과 동원 개념 재정립, 예비 전력 비전 2030, 동원사단 전력보강, 평시 복무 예비군제도, 과학화

예비군 훈련체계 구축 등의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예비 전력이 상비 전력의 보조 전력에 국한된다는 점과 동원이 전시에만 적용된다는 인식의 전환을 위해 예비 전력을 병력·물자·장비 등이 구분된 '자원'의 개념에서 하나의 '부대'로 확장하고, 동원은 전시 전환은 물론 평시 전력을 보강하기 위한 개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대웅 육군참모차장 대리는 "이번 대토론회는 육군의 미래 혁신과 제2의 도약에 있어 예비 전력이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고, 관계관들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됐다"며 "상비 전력에 준하는 예비 전력 정예화 노력으로 육군의 미래 비전을 구현하고, 더 강한 육군으로의 도약을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윤병노 기자



이대웅(앞줄 가운데) 육군참모차장 대리가 25일 개최된 예비 전력 정예화를 위한 대토론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육군 제공

주특기 배양, 최상의 전투수행 능력 높였다

육군73사단, 흑한기 훈련 성료

육군73사단이 고강도 흑한기 훈련을 성공적으로 종료해 전투 수행 능력을 대폭 끌어올렸다. 사단은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주둔지 일대에서 동계 작전 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한 흑한기 훈련을 시행했다. 훈련은 흑한 속에서도 장병들이 부대별 증·창설 절차를 숙달하고, 주특기 능력을 배양하는 데 중점을 뒀다.

사단은 흑한기 훈련에 앞서 지난달 말 전투지휘훈련(BCTP)에서 전투참모단의 지휘능력을 끌어올렸다.

전투참모단은 BCTP에서 적용했던 전

투방법을 발전시키고 미비점을 보완하며 각자가 맡은 임무를 숙달했다.

예하 부대 장병들은 전투준비태세 및 부대 증편 야외기동훈련(FTX)을 철야로 진행하며 막바지 추위 속에서 구슬땀을 흘렸다. 장병들은 전시기회소·거점 점령, 야전 취사장·급수장 설치, 근접정비반 운용, 화포 포신·차량 엔진 교체 등을 시행하며 최상의 전투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사단은 부대 증편 FTX에서 치장 장비·물자, 탄약 등의 적재·하역 시간과 부대별 증편장소로 이동해 분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산출했다. 분석 결과는 향후 작전계획에 반영해 발전시킬 예정이다.



육군73사단 장병들이 흑한기 훈련 중 부대 증·창설에 필요한 물자를 지게차로 옮기고 있다. 사진 제공=한의찬 일병

이문희(중령) 작전참모는 "훈련을 통해 사단의 동계 전투능력을 한 단계 격상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전투임무 위주의

실전적인 교육훈련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부대를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한영 기자